



■ 뉴스레터 변경사항

* 기존 뉴스레터 지면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내용은 “도농상생” 이었습니다. 이번주 뉴스레터부터는 “도농상생” 을 별도의 파일로 제작하여 뉴스레터와 함께 첨부파일로 발송해 드리고자 하오니 왜 “도농상생” 이 없지? 라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연구원 소식

○ 47회 문화강좌 진행

- 날짜 : 2017.04.29(土) 14시 / 장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강사 : 정도상 작가 / 주제 : 민주주의자 세종
 - 십오방 이야기, 친구는 멀리갔어도, 열애, 누망, 실상사 등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정도상님을 모시고 진행한 47회 문화강좌는 현대 정치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본 세종 임금이 명확한 민주주의자였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좌를 마친 후 뒤풀이 장소에서는 문화강좌에서 못다 나눈 민주주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쌓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정도상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 문화강좌 원고가 뉴스레터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문화연구소와 협약체결(4월 25일)

- 우리 연구원과 1969년 설립된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라문화연구소 제 16대 소장으로 취임한 윤상원 교수가 연구원을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전라도의 문화를 분석하고 미래에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전라문화연구소와 우리 연구원의 협약이 더 나은 내일을 당기는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전북지역 항일운동가 신문연재 집필진 회의(4월 25일)

- 오는 5월 4주차부터 시작될 전북지역 항일운동가 연재와 관련한 집필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동사업기관인 광복회 전북지부, 우리 연구원, 전북도민일보 등과 필진들이 12회에 걸쳐 진행될 연재에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일의 투혼을 견인하는 주옥같은 글들이 지면에 펼쳐질듯한 벅찬 기대가 샘솟습니다. 기고문은 시차를 두고 연구원 뉴스레터에도 심도록 하겠습니다.



○ 왕기석 명창 공연 안내(5월 12~13일)

- 관람일 : 2017.05.13.(土) / 장소 :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15 황토현 전적지 일대

- 우리 연구원 왕기석 이사가 제작총감독으로 진행하고 도올 김용옥 선생이 극본을 쓴 창무극 <天命> 공연이 5월 12일과 13일 2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도립국악단과 정읍시립국악단의 합동 공연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연구원 회원께서 참석하신다면 당일 뒤풀이와 숙박, 이튿날 아침 식사까지 함께 하기로 지난 정기 이사회에서 협의되었습니다.

4월 30일 현재까지 2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회차인 5월 13일 공연 관람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5월 4일(목)까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사 및 숙박 장소 확정 때문 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50주년 특별기획공연

창무극

天命

극본, 도출 김용익
작곡, 박영훈
미술감독, 조흥달
제작감독, 황기석
연출, 류기형
인무, 김수현
지휘, 조용안

**250명 최고의
제작진과 광대들이 뭉쳤다**

황토현 대첩의 역사적 현장에서 펼쳐지는 감동의 대서사시

2017년 5월 12일(금) ~ 13일(토) 19:45
정음 황토현 전적지 특설무대

주최, ❶ 천라북도, ❷ 정읍시
주관, 진라북도립국악원, 정읍사국악단, (사)1989국악무공치
공연문화,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063-539-6412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 한국고전학연구소,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휴강 안내

- 기 간 :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2호
- 진 행 :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교 재 : 『호남의사열전』

※ 금주는 5월 첫째주 연휴기간을 맞아 휴강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둘째주 부터는 다시 강의를 시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 연구원 신규 회원 가입 : 이번 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 김재영 ” 님 입니다. 김재영님은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이십니다. 앞으로 사업을 통해 더욱 자주 모시겠습니다. 연구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 러시아 해외역사탐방 안내

: 작년에 이어 제2차 해외역사탐방이 이어집니다. 오는 7월 1일~6일 사이에 5박 6일의 일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차 탐방의 종착지였던 하바롭스크에서 시작하는 올해 일정은 자유시 참변의 아픔이 있는 스바보드니(옛 이름 알렉세예프스크)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2017년 해외역사탐방 간략 일정 ◀

일 자	내 용	비 고
1일차	오후: 하바롭스크 도착	시베리아 횡단열차 1박
2일차	오전: 블라고베센스크 답사 오후: 자유시	자유시 1박
3일차	오전: 자유시 답사 저녁: 치타행 열차	시베리아 횡단열차 1박
4일차	치타 답사	치타 1박
5일차	오전: 치타 답사 오후: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 1박
6일차	하바롭스크 출발 인천 도착	

* 예상일정 : 5박 6일(7월 1일~7월 6일) / 예상인원 : 32명(현재 신청 21명)

* 예상경비 : 200만원(회원 10% 할인) / 참가신청 : 5월 12일까지

※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함께하는 베트남 평화기행

■ **여행명:**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역사와 치유를 위한 베트남 평화기행

■ **성 격:** 역사·문화·평화 기행

■ **지 역:**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 꽝남성, 호이안

■ **여행기간:** 2017년 08월 20일(일) ~ 2017년 08월 26일(토) / 06박 07일

■ **여행경비**

1) 항공료 (TAX, 유류할증료 포함)

해외: 인천↔호치민 / 베트남 국내: 호치민↔다낭

* 기준 항공가 44만원. 실제 항공 요금이 44만원 이상일 경우 여행 경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44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차액을 반납해 드립니다.

2) 현지 교통비 (전용차량, 도서간 이동편)

전용차량: 전세버스 35/45인승

3) 전 일정 숙박

3·4성급 호텔 (2인 1실) 5박

4) 전 일정 식대: 1끼 식대 평균 가격 8\$ 이상

5) 투어비

호찌민시 시내 산책 / 반레 시인과의 만남 / 전쟁박물관 탐방 / 구찌땅굴 탐방 /

고엽제 피해자들과의 교류 / 남부여성박물관 탐방 / 빈호아사 한국군 증오비 참배 /

빈호아 초등학교 방문 및 장학금 전달식 / 빈호아 학살 생존자 도안응이아와의 만남 /

탄타오 시인과의 만남 / 밀라이 박물관 탐방 / 하미 위령비 참배 / 하미 학살 피해자

고(故) 팜티호아 할머니 조문 / 풍니 위령비 참배 / 풍니 학살 생존자 탄 아주머니와의

만남 / 후에 궁중아악 가족연주단 <사절아악>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6) 현지 가이드 및 운전기사 숙식비, TIP

7) <한베평화재단> 오퍼레이팅비

가이드 1일 200\$ 외 통역비, 프로그램 기획 및 오퍼레이팅비

8) <한베평화재단> 길벗 여행경비(항공료, 숙식비, 교통비, 투어비)

9) 인민위원회 허가 수속비

10) 지원비: 생존자 지원비, 여행지역 지원비

11) 선물비

12) 해외여행자보험

* 신청기한은 5월 19일까지이며, 총비용은 참석인원수에 따라 유동적이거나 160~18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 품

月下獨酌(第1首)	달빛 아래 혼자 술을 마시며(첫째수)
花下一壺酒(화하일호주)	꽃 더미 속에 한동이 술
獨酌無相親(독작무상친)	홀로 마시자니 친구가 없어,
舉盃邀明月(거배요명월)	잔을 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여
對影成三人(대영성삼인)	그림자까지 세 사람이 되었지만,
月既不解飲(월기불해음)	달은 벌써 술맛 알지 못하고
影徒隨我身(영도수아신)	그림자는 한갓 내 몸만을 따르기에,
暫伴月將影(잠반월장영)	잠시 달을 벗하고 그림자 거느려서
行樂須及春(행락수급춘)	즐거운 놀이로 봄을 아우르리니,
我歌月徘徊(아가월배회)	내가 노래하면 달님은 서성이고
我舞影凌亂(아무영릉란)	내가 춤추면 그림자는 일렁거려,
醒時同交歡(성시동교환)	내가 깨었을 때는 함께 즐기다가
醉後各分散(취후각분산)	내가 취한 뒤에는 제각각 흩어지나니,
永結無情遊(영결무정유)	무정한 저 달과 영원한 교유 맺어
相期邈雲漢(상기막운한)	아득한 은하수에서 만나길 기약하노라.

■ 작자소개

- 이백(李白, 701~761). 성은 이(李), 이름은 백(白),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거사(淸蓮居士)라고 한다. '시선(詩仙)'이라 불리며 두보(杜甫)와 함께 중국 시사의 거성으로 추앙받는다. 당 현종 시절 한림공봉에 임명되어 출사했으나 향락에 빠진 왕에게 환멸을 느끼고 장안을 떠나 유람했다. 그가 남긴 천여 편의 시들은 원나라 소사빈의 《분류보주 이태백시》, 청나라 왕기의 《이태백전집》 등을 통해 전한다.

■ 감 상

- 이승을 떠나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 이백이 과연 지금 아득한 저 은하수에서 달님과 어울려 흥겹고 아름다운 술자리를 펼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달님을 만났으면, 그림자도 저절로 따라갔으리라.



<아레오파고스에서 바라 본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파르테논 신전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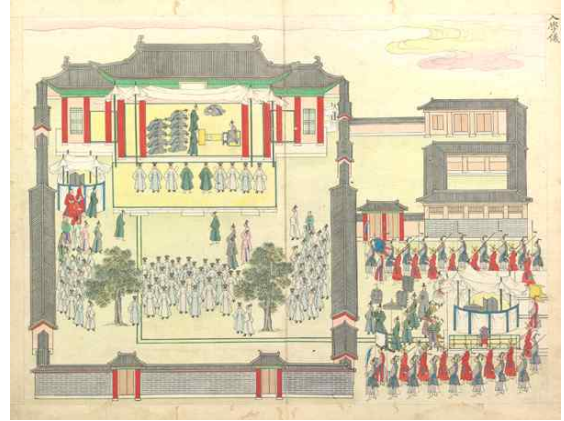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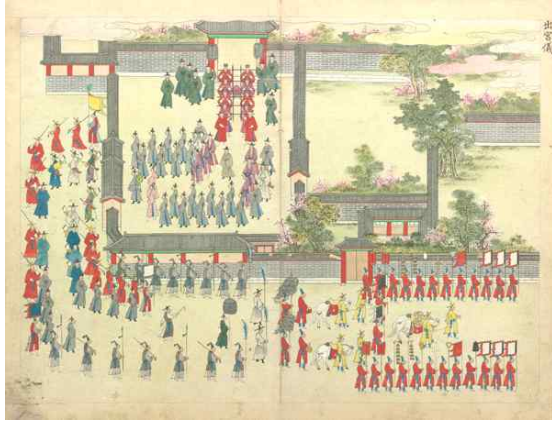
'아테네'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그것은 인간 세계가 아닌 신화 속의 세계로 느껴졌었다. 2005년 아테네에 첫 발을 디딘 이래 2010년, 2011년 세 차례 아테네를 다녀왔다. 아득히 먼 그리스 문화를 체험하고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테네 시내에 들어서는 순간 시선은 자연히 위로 향하였고 시선이 가는 그곳에는 우뚝한 대리석 유적들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푸른 하늘이 배경이 되어 더욱 하얗게 빛나는 대리석 유적들은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장엄한 자태로 그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하여 아테나 니케 신전, 에렉티온 신전 등이다. 유적들은 보는 위치에 따라 풍광이 달라진다.



이 중 파르테논 신전은 그 명성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 나의 문화유산 연재기

효명세자는 조선의 제23대 순조의 아들로, 18세의 나이에 순조의 명으로 4년간 대리청정을 하다 4년 만에 요절한 비운의 왕세자다. 지난 가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박보검이 맡아 열연한 이영의 모델이 바로 효명세자이다.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 모습을 담은 '왕세자입학도첩'(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817년)>

효명세자는 세도정치로 국정 운영이 혼란한 시기, 왕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총명한 왕세자였다. 대리청정 동안 호적법을 정비하고 형욕을 바르게 하는 등 정치적 능력도 뛰어났지만, 특히나 문학과 예술적 능력이 탁월했다.



<후일 문조로 추존되는 효명세자의 어진(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826년)>

그 중에서도 궁중 행사와 관련해 상당수의 악장과 가사를 짓고, 궁중 무용인 정재를 여러 작품 창작한 점이 돋보인다. 제례나 궁중의 잔치인 연향 때 추어지는 궁중 무용의 종류는 약 50여 종인데, 그 중 상당수가 효명세자의 손을 거쳐 새로 태어났다.

효명세자의 손을 거친 궁중 무용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춘앵전(春鶯囀)'이다. 춘앵전은 1828년 효명세자가 어머니 순원왕후의 40세 탄신일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창사(唱詞)를 짓고 장악원 전악(典樂) 김창하로 하여금 안무토록 한 궁중 무용이다. 50여 종의 궁중무용 중 춤사위가 가장 많은 춘앵전은 좁은 화문석 내에서 느리게 혼자 추는 독무(獨舞)로, 우아하면서도 절제된미를 잘 보여준다.



<'효의 궁중 무용'으로 불리는 춘앵전>

효명세자가 이렇듯 정재를 매만지고 궁중 연향을 통해 선보였던 이유는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효명세자가 일찍 유명을 달리한 까닭에 더는 지속되지 못했지만, 그의 손을 거친 궁중 무용 남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오는 5월 13일(토) 창경궁에서 순조 대 궁중 연향인 '기축진찬'이 재연된다. 오전 11시에는 명전전에서, 오후 5시에는 문정전에서 여러 궁중 무용이 펼쳐지는데 효명세자가 창안한 궁중 무용 중 오전에는 아박무를, 오후에는 춘앵전을 만날 수 있다.